

주간 농업농촌동향

2014. 11. 17. Vol. 45

■ 농정이슈

한·중 FTA 실질적 타결 (11.10.) 이후 주요 동향

■ 정책브리핑

한·중 FTA 양허결과 (농산물·임산물)

■ 연구지원

2014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

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

금주의 핫 이슈

〈한·중 FTA 실질적 타결 (11.10.) 이후 주요 동향〉

〈정부〉

- [농식품부, 한·중 FTA 실질적 타결 관련 농업인단체장 간담회 개최, 11.10.] 한·중 FTA 농업분야 협상결과 설명, 향후 국내대책 관련 농업계 의견 수렴
- [국회 농해수위, 한·중 FTA 현안보고, 11.12.] 전체회의에서 농식품부해양수산부로부터 한·중 FTA 결과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 받고 **농축산업 피해 대책 마련 촉구**
- **정부, 한·중 FTA타결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 위해 국내 보완대책 마련 착수**

〈종합대책 주요 내용(안)〉

- (발작물 경쟁력 제고) 발기반정비, 발기계획, ICT융복합
- (소비·수출기반 확대) GAP 확산, 농식품 산업 육성, 수출 확대
- (농가소득안정) 발작물제 확대, 수입보장 보험도입
- (인력, 정책금융) 농업인력 육성과 농업정책금리 인하

〈언론〉

- [한·중 FTA 농수산물 개방수준 역대 최저, 11.10.] 쌀 협정 제외 및 주요 신선 농축산물 양허제외, 전기, 전자 등 국내 IT업계도 큰 영향 없을 듯, 경제 영토 확대됐지만 한·중 양국 실익 적어
- [한·중 FTA 농업분야 우려, 11.11.] 농식품 피해 최소화했지만 실효성 의문, 농축수산업계 비상, 농민들 반발, 중국산 저가 농축산물 한식 식탁 점령 우려, 정부 농업피해 대책 착수
- [한·중 FTA 불분명한게 많아, 11.12.] 정부는 우리 측 방안 70~80% 관철, 세부 내용 알 수 없어 기업들 답답, 원산지규정 세부기준 중요, 52개국과 FTA 체결로 효과 반감 부작용 심화 우려
- [한·중 FTA 지속 협상 11.13.] 농산물세이프가드 아예 제외되어 중국 약용 우려, 시장선점 중요해 국회비준 서둘러야
- [농업 위기 아닌 기회, 11.14.] 사회주의 국가와 첫 FTA 리스크 조심, 김치 대중국 수출 확대, 중국 농산물 품질 국내산 위협 발작물 경쟁력 제고, 협정별 기존 대책 통폐합한 농가소득안정종합대책 필요,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 모색

자료 : 경향신문·국민일보·동아일보·매일경제문화일보·서울경제서울신문·세계일보연합뉴스조선일보·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헤럴드경제 등

참고 :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, 「한·중 FTA 제4차 협상 개최 - 잔여 쟁점 분야 집중 논의」(2014.11.4), 「한·중 FTA 협상 “실질적 타결” - 한중 정상회담(11.10)에서 공식 선언」(2014.11.10)

<청와대, 한·중 FTA 쟁점 해명>

- [청와대, “한·중 FTA 관련 6대 쟁점 해명, 11.14.] 안중범 청와대 경제수석, 기자실 브리핑(호주 브리즈번) 통해 한중 FTA 협상 장기간 신중히 진행, APEC 정상회기 계기로 타결 지은 것도 계획대로 된 것
- (1. **줄속 협상 아니다**) 한중 FTA 협상에서 전체 자유화율을 정하는 단계별 협상 방식 도입, 협상 기한도 한-미(10개월), 한-EU(2년2개월)보다 장기간인 2년6개월 소요되는 등 신중히 협상 진행
- (2. **농수산물 피해 거의 없다***) 농수산물은 역대 최대규모인 60%를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피해는 거의 없을 전망
 - ※ 이와 관련,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“대부분의 농산물이 양허제외돼 국내 농업부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분석(11.11.)
- (3. **갑작스런 타결 아니다**)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 때 FTA 연내 타결 합의,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올해 마지막 정상회담이라 APEC에 맞춰 타결
 - ※ ‘실질적 타결’이란 용어에 대해 “모든 쟁점이 타결됐으나 문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, 기 체결한 13개 FTA 중 싱가포르, 인도, 터키, 호주, 중국이 이에 해당
- (4. **중국 자유화율 낮지 않다**) 중국의 자유화율 품목수 기준 90% 넘는 것은 한국이 이미 일방적으로 무역흑자 내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으며, 농수산물을 60% 방어한 점도 감안할 필요
- (5. **상품양허안 공개하고 있다**) 현재 문서가 가서명 이전이어서 외교 관례상 불가능, 설명자료 형식으로 최대한 공개 중
- (6. **현지진출기업 이익도 크다**) 현지진출 기업들도 FTA상 다양한 제도적 이익 혜택 전망, 자동차 등 현지진출 기업 품목보다 의료기기, 소형가전, 의류 등 유망 중소기업 품목 위주로 개방 추진
- [한중 FTA 예상 기대효과] △FTA 네트워크 확충 및 아태경제통합 주도권 확보, △관세절감 효과, △중국 내수 소비재시장 진출 가속화, △외국인투자 유치 확대, △비관세장벽 등 기업 애로 해소

자료 : 연합뉴스(2014.11.13.) / news1·NEWSis·데일리안·이데일리(2014.11.15.)

□ 한-호주·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처리

- [외교통일위원회, 한-호주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처리, 11.13.] 늦어도 12.2.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합의

<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, 한-호주캐나다 FTA 연내 발효 촉구, 11.10.>

- 호주캐나다의 경제규모 및 구매력 감안 시 FTA 이익 극대화 위해 **조속한 비준 통해 시장선점 확보 필요**
- (한호주 FTA) 한호주 FTA 서명(2014.4.8.)* 보다 **일호주 EPA 서명(2014.7.8.)**이 3개월 늦지만 비준 절차는 조속히 진행 중**
 - ※ (한국) 2014.11.6. 외교통상위원회 상정 / (호주) 2014.11.6. 국내절차 완료
 - ※※ (일본) 2014.11월 말 / (호주) 2014.12월 말 국내절차 완료 예상
- (한캐나다 FTA) 캐나다는 일본, EU, TPP 등 경합하는 FTA 추진 중, 캐나다일본 FTA 협상 급진전 가능성 감안 시 캐나다 시장 내 선점효과 반감 우려
 - ※ (캐나다) 2014.12월 초 국내절차 완료 예상
- (농업분야 대책) 향후 15년간 발생 예상 피해규모와 동일한 2.1조 원 규모의 국내보완대책 마련국회 제출, 여야정 협의체 구성으로 축산단체에서 주장하는 9대 요구사항 반영 최대한 노력
 - ※ △정책자금 금리 1%까지 인하, △FTA 피해 보전 직불제 현실화, △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조속 처리, △기준 FTA 대책 현실적 보완, △실질적인 사료가격 안정대책 수립, △축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과 수출확대 예산지원 △영농·상속공제 한도 및 공제 범위 등 확대

- [여야정 협의체, 축산업계 피해 대책 최종 합의, 11.13.] 한-호주캐나다 FTA 최대 쟁점이었던 **축산업계 피해 대책 최종 합의서명,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와 무역이득공유제 문제는 한중 FTA 보완대책 마련 시 재논의**
 - (주요 내용) △축산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(3% → 1.8~2*), △무허가 축사 양성화, △도축장 전기요금 2024년까지 20% 인하, △영농상속공제한도 증액(5억 원 → 15), △우유 소비 촉진 위해 학교의경 우유 급식 확대 등
 - ※ (1.8%)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·긴급경영안정자금
 - (2%) 축사시설현대화자금·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·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·축산경영종합자금

자료 : news1·NEWSis·머니투데이·서울경제·아시아경제(2014.11.11.) / 농민신문(2014.11.12.) / KBS·SBS·YTN(2014.11.13.) / 국민일보·news1·동아일보·매일경제·아시아경제·연합뉴스·조선일보·파이낸셜뉴스·헤럴드경제(2014.11.14.)

참고 : 산업통상자원부·외교부 공동보도참고자료_「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연내 발효 필요 - 발효 지연시 FTA 선점효과 반감우려, 한호주 FTA는 연 46억불 손해 우려 -」(2014.11.10.)

<한·호주 FTA 외교 장관 회담, FTA 발효 협력키로>

- [APEC 합동각료회의 계기 한-호주 외교장관 회담 개최, 11.7., 베이징] FTA 발효 위한 양국 **국내절차 조속히 완료하는데 계속 협력**

자료 : KBS·YTN(2014.11.8.) / 국민일보·매일경제·아시아투데이·연합뉴스(2014.11.10.)

참고 : 외교부 보도자료_「윤병세 장관, APEC 합동각료회의 계기 한-호주 외교장관회담 개최」(2014.11.8.)

㉔ 농정이슈

□ 2015년 농식품부 예산 6,327억 원 증액

- [2015년 농식품부 예산 증액] 국회 농해수위, 전체회의(11.12.)에서 (당초) 14조 940억 원 → (증액) 14조 7,767억 원으로 상임위안 의결
 - (증액) 쌀직불금(2,582억 원 ↑), 쌀기반 정비사업(140억 원 ↑), 농업생산기반 정비(2498억 원 ↑)
 - (감액) 쌀 변동직불금, 살처분 보상금 및 재해대책비 등의 경우 집행 가능성 저조, 예비비 성격의 허수 예산이 과다 반영 이유로 총 3496억 원 감액
 - ※ 예결특위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가동(11.16.~)해 늦어도 11월 말까지 본회의 넘길 계획

자료 : 농민신문(2014.11.14.)

□ 올해 쌀 생산량 424만 톤, 가격안정 위해 쌀 24만 톤 매입·격리

- [쌀 수급안정 위해 24만 톤 매입격리] 2014년 쌀 생산량 424만 톤*(전년대비 0.3% ↑) 추산됨에 따라 신곡 수요량 400만 톤 초과하는 24만 톤 매입격리**, △시장 격리 물량은 시장에서 쌀 물량 부족에 따른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 등이 발생 하지 않으면 밥쌀용으로 시장 방출 자제
 - ※ 통계청 2014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 발표(11.14.)
 - ※ ※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 수급 안정 위해 '쌀 가격 안정대책 발표(10.21.)' 당시 약속했던 18만 톤에 대해 이미 매입·격리 착수

자료 : YTN(2014.11.14.) / NEWSis아시아경제-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(2014.11.15.)

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14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 - 생산량 중 신곡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 내에서 매입 -」(2014.11.14.)

□ 기재부, 미곡류 특별긴급관세 적용 확대

- [「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11.7.~12.17.] 현행 농림축산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규칙 적용시한이 만료 (2014.12.31.)됨에 따라 2015년도에 특별긴급관세 부과할 대상 품목 규정
 - (주요 내용) △현행 부과대상인 수삼 등 22개 품목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연장, △귀리 플레이크 등 가공곡물 11개 품목 물량기준 및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 물량기준과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추가

자료 : 아시아경제이투데이(2014.11.10.)

참고 : 기획재정부 입법예고_「「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」 일부 개정령(안) 입법예고」(2014.11.7.)

㉔ 농정이슈

□ 가공식품·음식점 식재료 원산지인증제 추진

- [김우남 국회 농해수위원장, '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' 대표발의, 11.10.] 국내산 농수산물 원료를 95% 이상 사용하는 가공식품이나 음식점에 대해 정부가 원산지 보증하는 방안 추진
 - (취지) 소비자 불신 제거, 품질 차별화 통해 국산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처 개발
 - (현행) 재료의 원산지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축산물 가공품 262품목과 수산가공품 37품목 대상으로 시행
 - (한계)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표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쇠고기,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에 국한

자료 : 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(2014.11.11.) / 농민신문(2014.11.12.) / 한국농어민신문(2014.11.14.)

□ 인삼 경작신고 기간 확대 및 홍삼 제조방법 규제 완화

- [인삼 경작농가의 편의 도모 위해 「인삼산업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 공포시행, 11.12.] △경작신고 기관 확대: (기존) 관할 인삼조합 → (개정) 경작지 관할 사군, △홍삼 제조방법 규제 완화: 등외등급의 홍삼 습점압착* 가능, 가공업체 자율로 가공 방법 선택
 - ※ 검사가 완료된 건조 홍삼에 수증기 등을 쏘여 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각형 모양으로 압착하는 것(등급이외 홍삼: 전체 홍삼 생산량(461톤)의 28%(129톤) 수준

자료 : news1-NEWSis연합뉴스(2014.11.11.) / 한국농어민신문(2014.11.14.) / 농촌여성신문(2014.11.17.)

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인삼 경작신고 기관 확대(조합+사군) 및 홍삼 제조방법 규제 완화」(2014.11.11.)

□ 전통식품 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10선 선정·발표

- [농식품부, '전통식품 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' 선정, 11.12.] 각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을 원재료로 김장·장류떡 등 전통식품을 직접 만들고 다양한 농촌문화, 전통, 자연생태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 10개소 선정

구분	선정 마을
김장	△충북 괴산 둔용울갱이 마을(김장, 청국장, 두부), △충남 청양 가래마을(김장, 두부, 인절미), △경북 경주 세심마을(김장, 도토리묵), △제주 명도암 참살이 마을(김장, 고추장)
장류	△경기 이천 서경들마을(청국장, 메주, 다식), 전북 순창 고추장 익는 마을(고추장)
떡, 한과	△강원 양양 송천 떡마을(각종 떡), △경남 밀양 평리마을(대추찰떡, 대추엿), △전남 담양 삼지내마을(한과, 쌀엿, 인절미), △충남 서천 동자복 마을(모시떡)

자료 : news1-아시아투데이-아주경제-연합뉴스이데일리(2014.11.13.)

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「전통식품 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10선」 선정 - 늦가을, 김장담그기, 농촌체험마을에서 즐겨요!」(2014.11.13.)

▣ 농정이슈

<2014년 우수 관광농원 20개소 선정>

- [농식품부, 2014년 ‘대한민국 우수 관광농원*’ 20개소 선정] 우수 관광농원 표지판 제작배부, 여행관련 전문지 등 다양한 홍보 실시해 사회적 관심도 제고, 관광농원 활성화 기여

※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 이용해 영농체험시설(기본시설), 지역특산물 판매시설, 체육시설, 휴양시설, 숙박시설,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도시민 등에게 농업·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, 1984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392개소 운영 중

- (우수 관광농원) (경기) 자연생태, (강원) 금학산, 모듈자리, 정강원, (충북) 광운, 햇살 아래, (충남) 팜카밀레, 피나클랜드, 한밭, (전북) 무주, 학원, (전남) 대한다원, 미림, 삼화, (경북) 비슬, (경남) 무척산, 삼가, 지리산 양탕국 커피문화원, 지리산오도재, (제주) 휴애리

자료 : 국민일보·news1·아시아경제·아주경제·연합뉴스·이데일리(2014.11.14.)

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우리 주변의 우수 관광농원 어디일까요? - 농림축산식품부, 2014년 우수 관광농원 20개 선정 -」(2014.11.14.)

□ 전북 김제 고병원성 AI 발생

- [전북 김제 종오리 농가 고병원성(H5N8) AI 확진, 11.9.] AI 의심신고(11.7.) 접수, 정밀 검사 결과, 고병원성 AI 확진, AI 발생 농장 씨오리 12,000마리와 부화장으로 보낸 오리알 60만 개 모두 매몰 처리

- (방역 강화) 14개 시군에 거점 소독 시설(42개) 및 이동 통제 초소(70곳) 설치

- [전남 보성 토종닭 농가 AI 의심축 신고, 11.12.] 전남 보성 토종닭(사육두수: 400수) 농가에서 AI 의심축 신고(11.12.), 긴급 살처분

자료 : KBS·MBC·SBS·YTN(2014.11.9.) / 국민일보·동아일보·서울신문·연합뉴스·한국일보(2014.11.10.) / KBS·SBS·YTN(2014.11.12.) / 경향신문·아시아경제·연합뉴스·한겨레(2014.11.13.) / 한국농어민신문(2014.11.14.)

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전북 김제 종오리 농가에서 AI 의심축 신고」(2014.11.7.), 「전남 보성 토종닭 농가에서 AI 의심축 신고」(2014.11.12.)

<돼지유행성설사병(PED) 발생주의보 발령>

- [농림축산검역본부, PED* 발생주의보 발령, 11.11.] 동절기(11~4월) 맞아 PED 발생 증가가 예상**됨에 따라 돈사 출입 사람·차량 소독 등 당부

※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서 특징적 증상은 구토와 수양성설사 특히, 신생자돈에서 높은 폐사율 보임(평균 50%, 심할 경우 100%).

※※ (2014.1.~5.) 월 30건 내외 → (2014.6.~) 10건 미만으로 감소한 반면 계절적 특성 있는 질병인 만큼 다발 가능성 높기 때문

자료 : 농민신문(2014.11.14.) / 전업농신문(2014.11.17.)

참고 : 농림축산검역본부_「돼지유행성설사병(PED) 발생주의보 발령」(2014.11.11.)

▣ 정책브리핑

정책브리핑 한·중 FTA 양허결과 (농산물 및 임산물)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2014.11.10.) · 산림청(2014.11.14.)

□ 농식품부

- 전체 농산물(1,611개) 중 초민감품목 581개(36.1%), 민감품목 441개(27.4%), 일반 품목 589개(36.6%)로 합의

※ (일반) 10년내 철폐, (민감) 10년 초과 20년 이내 철폐, (초민감) 양허제외/TRQ/부분감축

-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 비중이 63.4%(1,022개)로 기 체결 FTA를 상회

※ (미국) 12.2%, (EU) 14.5%, (캐나다) 18.5%, (칠레) 29.7%, (호주) 38.5%

- [초민감품목] 초민감품목 581개 중 548개(94.3%) 대해 양허제외, 7개(1.2%) TRQ, 26개(4.5%) 부분감축으로 합의

- (양허제외) 국내 생산이 있는 대부분의 품목은 양허제외

※ (미국) 1.0%(16개), (EU) 2.8%(41개), (호주) 10.5%(158개), (캐나다) 14.1%(211개)

- (TRQ) 이미 WTO/TRQ를 통해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저율관세할당(TRQ)을 통해 국내 산업 보호 및 공급 안정 도모

※ TRQ 물량(고정): 대두 10천 톤, 참깨 24, 고구마전분 5, 팔 3, 기타사료 38, 맥아 5

- (부분감축) 대중 수입이 많은 국내 민감품목은 부분 감축으로 합의, 개방 최소화

※ 관세 부분감축(평균 20%) 품목: 김치, 혼합조미료, 기타소스, 조제 땅콩, 들깨, 당면, 조제 팔, 기타 당, 전분용 토란, 타피오카, 귀리 등

- [민감품목] 레몬, 마가린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은 관세 철폐기간 장기화 하여 수입 급증 가능성에 대비

- 기타 한약재*, 기타 과실견과*** (조제), 기타 과실(잼·제리)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위해 20년 미선형 철폐 적용

※ 기타 한약재(관세 8%): 13년차부터 철폐

※※ 기타 과실견과(관세 45%)·기타 과실(30%): 11년차부터 철폐

- [일반품목] 신선농산물 중 저율 관세품목, 가축 사료원료 등 수입 의존 품목, 국내 수요가 없는 품목 등은 10년내 관세 철폐

☞ 정책브리핑

<품목별>

- **[쌀]** 쌀 및 쌀 관련 제품(16개 세번)은 **협정대상에서 제외***
 - ※ 관세철폐 의무 이외 관세와 관련된 협정상의 모든 의무 적용 배제
- **[축산물]** **소·돼지·닭·오리** 등 국내 주요 축종의 핵심 품목, **우유·계란** 등 주요 축산물은 모두 **양허제외**
 - 번식용 가축, 저울 관세품목(돼지비계 3%), 축산 가공품(알부민) 등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만 일부 개방
- **[과실류]** **사과·배·포도·감·귤·감·딸기·수박·복숭아** 등 국내 주요 생산소비 품목은 모두 **양허제외**
 - 감귤과 소비대체 효과가 큰 오렌지, 과실류 주요 가공품인 포도·사과·복숭아·딸기·토마토 주스도 양허제외
 - 견과류도 국내 주요 생산품목인 밤·호두·잣·대추·은행 등은 양허제외, 바나나 등 수입 농산물 간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만 개방
- **[채소·특작류]** **고추·마늘·양파·생강** 등 양념채소, **배추·당근·무·오이·가지** 등 주요 발작물, 인삼류 등은 **양허제외**
 - **(주요 채소류)**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, 냉동·건조·조제저장일시저장 등 우회 수입 가능 세부품목도 모두 양허제외
 - **(인삼류)** 고율관세(222.8~754.3%) 세부품목은 모두 양허제외, 음료·차 등 저율관세(8%) 세부품목만 20년 철폐로 합의
 - **(참깨·들깨)** 수입 의존도가 높은 참깨는 TRQ로 매년 24천 톤 수입, 들깨는 5년에 걸쳐 현행 관세(40%)를 36%로 부분 감축
- **[가공식품]** **간장·된장·고추장·매주** 등 전통식품, **대두유(식용유)·설탕·전분** 등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품목도 **양허제외**
 - **(김치)** 관세(현행) 20% → 10%(2%p) 이내*에서 부분 감축
 - ※ 평균 부분감축률은 20%이나, 배추·양념채소 및 김치업계에 미칠 영향 최소화 위해 10% 이내 감축
 - **(혼합 조미료·기타 소스)** 우회 수입을 통해 양념채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혼합 조미료·기타 소스(일명 다대기)도 부분 감축폭 최소화
 - **(고구마 전분)** 전분류 중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고구마 전분은 TRQ로 매년 고정물량으로 5천 톤 수입

☞ 정책브리핑

☐ 산림청

- **[산림청, 한중 FTA 핵심임산물]**은 **양허제외로 영향 제한적 전망** 목재류 등 대중 수입액 많고, 가격경쟁이 심한 합판류와 제재목은 대부분 양허제외, 대중 수입액 적은 품목도 부분감축이나 20년철폐로 결정된 품목 다수
- 전체 임산물(441개) 중 초민감품목 85개(19.2%), 민감품목 157개(35.6%), 일반품목 199개(45.1%)로 합의
 - ※ (일반품목) 10년내 철폐 / (민감품목) 10년 초과 20년 이내 철폐 / (초민감품목) 양허제외/TRQ/부분감축
- **[초민감품목]** 총 85개중 양허제외 68개, 부분감축 17개
 - **(양허제외)** 핵심 임산물은 대부분 양허제외, **△단기소득임산물:** 120개 중 38개(31.7%)*, **△목제석재류:** 321개 중 30개(9.3%)*
 - ※ 밤, 표고버섯, 대추, 감, 잣, 산양삼, 송이(신선/건조/조제저장), 호도, 은행, 기타견과류, 고사리(신선/냉동/일시저장), 고비, 구기자, 오미자, 더덕, 도라지(건조), 죽순(냉동/설탕저장)
 - ※※ 두께 6mm 이상 합판 14종, 제재목 5종, 섬유판 6종, 고밀도화목재 1종, 조립식 건축물 1종, 기타목재류 2종, 화강암 1종
 - **(부분감축)** 대중 수입이 많은 품목은 부분감축 합의로 개방 최소화, **△단기소득임산물:** 현행관세의 10%를 5년 동안 감축*, **△목제류:** 현행관세의 20%를 5년 동안 감축**
 - ※ 2개(냉동송이, 건조고사리)
 - ※※ 15개(합판 7개, 섬유판 5개, 제재목 3개)
- **[민감품목]** 총 157개중 20년철폐 51개, 15년철폐 106개
 - **(20년철폐)** 도라지, 죽순, 대나무, 제재목 등 51개 품목은 20년 장기관세철폐로 수입 급증 가능성에 대비
 - **(15년철폐)** 기타 국내 생산이 없거나 수입액이 적어 덜 민감한 **송로, 피스타치오, 코르크, 석재류** 등 106개 품목은 15년철폐
- **[일반품목]** 총 199개중 10년철폐 101개, 5년철폐 29개, 즉시철폐 69개
 - 새털, 아몬드, 도토리 등 국내 가공을 위한 수입의존 품목, 수입액 적은 품목 등은 10년 이내 관세철폐

연구지원 2014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

자료 : 통계청(2014.11.14.)

개요

- [통계청, 2014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 발표, 11.14.] 2014년 벼, 발벼의 10a당 생산량을 표본 조사하여 추정한 결과
※ (표본수) 약 6,000개 표본구역

주요 내용

- [쌀 생산량] 4241천 톤, 전년(4,230천 톤)대비 0.3% ↑
 - (총 생산량, 현백율 92.9%) (2013) 4,230천 톤 → (2014) 4,241(0.3% ↑)
※ 조정 현백률 90.4% 적용 시: (2013) 4,116천 톤 → (2014) 4,127
 - (도별) 충남(836천 톤) > 전남(809천 톤) > 전북(679천 톤) 순
- [재배면적] 816천ha, 전년(833천ha)대비 2.1% ↓
 - (원인) 공공시설, 건물건축 등에 따른 논 면적 감소, 소득이 높은 시설작물·특용작물 등 밭작물 전환
- [단위면적(10a)당 쌀 예상생산량] 520kg, 전년(508kg)대비 2.4% ↑
 - (10a당 생산량) (평년) 496kg, (2013) 508kg → (2014) 513
※ 조정 현백률(90.4%) 적용 시: (평년) 483kg, (2013) 495kg → (2014) 499
 - (원인) △생육초기 이삭수 증가, △숙숙기(벼 낱알이 익는 시기, 9.상순~9.하순)에 일조량 증가 등 기상 여건 호조로 완전날알수 증가
- [쌀 예상생산량] 4,184천 톤, 전년(4,230천 톤)대비 1.1% ↓

■ 쌀 생산량 및 벼 재배면적 현황 ■

구분	평년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	전년비(%) 평년비(%)	
								전년비(%)	평년비(%)
총 생산량(천 톤)	4,042	4,916	4,295	4,224	4,006	4,230	4,241	0.3	4.9
10a당 생산량(kg)	496	534	483	496	473	508	520	2.4	4.8
재배면적(천 ha)	(816)	924	892	854	849	833	816	-2.1	-

※ 평년 10a당 생산량: 최근 5년 중 최고와 최저 10a당 생산량을 제외한 연도의 평균 생산량

※ 현백률 92.9% 기준이며, 10a당 생산량은 논벼 기준 생산량임.

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기획조정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.
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